 기획재정부		보도참고자료	
보도일시	배포시	배포일시	2021. 8. 3.(화) 09:00
담당과장	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김승태 (044-215-2770)	담당자	이상홍 사무관 (lsh0622@korea.kr)

제목 : '21년 7월 소비자물가 동향

- ◇ 7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2.6% 상승(전월비 0.2%), 근원물가(농산물·석유류 제외)는 전년동월비 1.7% 상승(전월비 0.1%)
- ◇ 농축수산물·석유류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, 전기수도가스가 상승 전환되며 6월 대비 오름폭 확대

주요품목 기여도

(단위: %p, 전년동월비)

상방 요인	하방 요인
휘발유(0.40), 경유(0.27), 사과(0.16), 공동주택관리비(0.13), 달걀(0.11)	고등학교납입금(△0.15), 휴대전화기(△0.08), 배추(△0.04), 학교급식비(△0.04),

- 7월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·석유류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전기수도가스가 상승전환되며 전년동월비 2.6% 상승

(%)	'20.7	8	9	10	11	12	'21.1	2	3	4	5	6	7
전년동월비	0.3	0.7	1.0	0.1	0.6	0.5	0.6	1.1	1.5	2.3	2.6	2.4	2.6
전월비	0.0	0.6	0.7	△0.6	△0.1	0.2	0.8	0.5	0.1	0.2	0.1	△0.1	0.2

- (농축수산물) 축산물 가격 오름폭이 확대되었으나 농수산물은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상승폭 축소(전년동월비, (6월)10.4→(7월)9.6%), ※ 전월비로는 5개월 연속 하락

* 전년동월비(% 6→7월) : (농산물)14.1→**11.1** (축산물)9.5→**11.9** (수산물)0.5→**0.3**

* 주요품목(전년동월비, % 6→7월) : (배추)△19.8→**△24.3** (파)11.3→**△17.5** (달걀)54.9→**57.0**

- (석유류)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*되고 있으나, 작년 기저 효과가 완화**되면서 오름폭 소폭 축소(19.9→**19.7%**)

* 두바이유(\$/b): ('20.5) 30.5 (6) 40.8 (7) 43.3 / ('21.5) 66.3 (6) 71.6 **(7) 72.9**
 휘발유(원/L): ('20.5) 1,255 (6) 1,323 (7) 1,360 / ('21.5) 1,541 (6) 1,577 **(7) 1,629**

** '20.6월 △15.4% → '20.7월 △10.2%

- (전기수도가스) 작년 7월 도시가스요금 인하*의 기저효과가 소멸되고, 작년 12월 발표된 전기요금 할인 축소**가 7월 부터 시행되며 상승 전환($\Delta 4.8 \rightarrow 0.3\%$)

* 가스요금 인하의 물가하락효과는 전년동월비 기준 1년간('20.7~'21.6월)만 작용 후 소멸

** 7월부터 일반가구의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 축소(월 4천원 \rightarrow 2천원)

- (개인서비스) 여름휴가 관련 서비스물가 상승 등으로 상승폭 확대($2.5 \rightarrow 2.7\%$)

* 주요품목(전년동월비, %, 6 \rightarrow 7월): (햄버거)3.4 \rightarrow **8.0**, (국내단체여행비)2.9 \rightarrow **5.7** (호텔 숙박료) $\Delta 1.4 \rightarrow$ **2.7**, (콘도이용료) $\Delta 2.8 \rightarrow$ **4.6**

품목별 상승률(%)	전체	농 축 수산물	공업 제품	석유류	가공식품	전기수도 가스	집세	공공 서비스	개인 서비스	외식	외식외
6월 전년동월비	2.4	10.4	2.7	19.9	1.4	$\Delta 4.8$	1.4	$\Delta 0.6$	2.5	2.3	2.7
7월 전년동월비	2.6	9.6	2.8	19.7	1.9	0.3	1.4	$\Delta 0.5$	2.7	2.5	2.8
(기여도, %p)	-	(0.8)	(0.9)	(0.8)	(0.1)	(0.0)	(0.1)	($\Delta 0.1$)	(0.9)	(0.3)	(0.6)
전월비(%)	0.2	$\Delta 0.4$	0.7	3.3	0.3	$\Delta 6.5$	0.1	0.1	0.6	0.3	0.8
(기여도, %p)	-	($\Delta 0.0$)	(0.2)	(0.1)	(0.0)	($\Delta 0.2$)	(0.0)	(0.0)	(0.2)	(0.0)	(0.2)

- 물가의 기초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*(농산물·석유류 제외)는 오름폭 확대($1.5 \rightarrow 1.7\%$)

*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인 충격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는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상승률로 전체 460개 품목 중 농산물과 석유류 관련 품목을 제외한 407개 품목으로 구성

(전년동월비, %)	'20.7	8	9	10	11	12	'21.1	2	3	4	5	6	7
농산물 및 석유류제외	0.7	0.8	0.9	0.1	1.0	0.9	0.9	0.8	1.0	1.4	1.5	1.5	1.7
식료품 및 에너지제외	0.4	0.4	0.6	$\Delta 0.3$	0.6	0.5	0.4	0.3	0.6	1.1	1.2	1.2	1.2

- 체감지표인 생활물가지수*는 상승폭 확대($3.0 \rightarrow 3.4\%$)

* 전체 460개 품목 중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1개 품목으로 작성

* 전년동월비(% , 6 \rightarrow 7월) : (식품)4.3 \rightarrow **4.4** (식품이외)2.2 \rightarrow **2.8**

- 신선식품지수*는 오름폭 축소($10.3 \rightarrow 7.3\%$)

* 신선어개(생선·해산물), 신선채소, 신선과일 등 계절 및 기상조건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50개 품목으로 작성

* 전년동월비(% , 6 \rightarrow 7월) : (신선어개)0.7 \rightarrow **0.4** (신선채소)5.6 \rightarrow Δ **0.8** (신선과일)22.2 \rightarrow **21.3**

(전년동월비, %)	'20.7	8	9	10	11	12	'21.1	2	3	4	5	6	7
생활물가지수	0.0	0.5	0.9	$\Delta 0.7$	$\Delta 0.1$	$\Delta 0.1$	0.3	1.2	1.5	2.8	3.3	3.0	3.4
신선식품지수	8.4	15.8	21.5	19.9	13.1	10.0	9.2	18.9	16.5	14.6	13.0	10.3	7.3

□ 7월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·석유류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기수도가스 상승전환 등으로 6월에 비해 오름폭 확대

○ 6월과 마찬가지로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등 공급측 요인이 물가상승의 상당부분을 설명

* 농축수산물 및 석유류 기여도(전년동월비, %p, 6→7월) : 1.56(65.0%) → 1.52(58.0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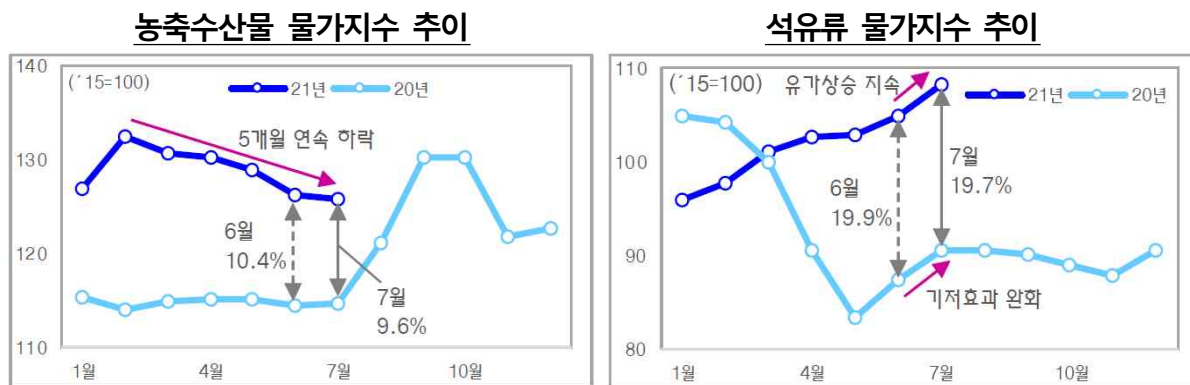
▪ 재배증가·생육상황 양호 등에 따라 농산물 가격 상승폭이 축소¹⁾되고, 석유류 기저효과가 완화²⁾되는 등 공급측 요인의 오름폭이 둔화된 측면이 있으나,

1) 농산물 물가상승률(전년동월비, %): ('21.2)21.3 (3)19.2 (4)17.9 (5)16.6 (6)14.1 (7)11.1

2) 석유류 물가상승률(전년동월비, %): ('20.6)△15.4 (7)△10.2

▪ 폭염 등 기상악화, OPEC+ 합의지연에 따른 유가상승 지속* 등 일부 리스크 요인이 현실화되며 공급측 요인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지난달과 유사

* 7.1일 회의개최 → 18일에야 합의 도출 (동 기간중 두바이유 평균 73.4\$/b, **최고 75.9\$/b**)
두바이유(\$/b): ('21.4) 62.9 (5) 66.3 (6) 71.6 **(7) 72.9**



○ 다만, 전기수도가스는 작년 7월에 인하된 가스요금의 기저 효과 소멸¹⁾, 금년 7월 전기요금 할인축소 시행²⁾ 등으로 지난달까지 존재하던 물가하락요인이 없어지며 상승 전환*

* 전기수도가스 기여도(전년동월비, %p, 6→7월) : △0.2 → 0.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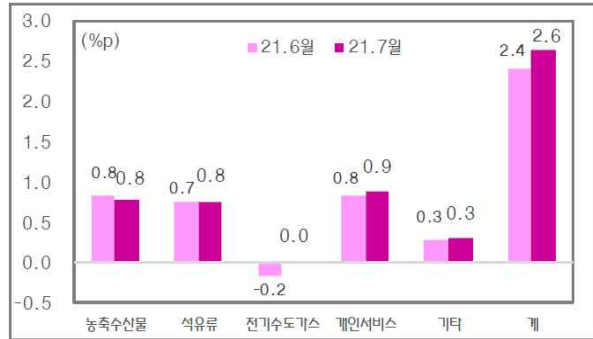
1) '20.7월 도시가스요금 인하(주택용 11.6%) 물가하락효과는 전년동월비 기준 1년간('20.7~'21.6월)만 작용 후 소멸

2) '21.7월부터 일반가구 전기요금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축소(월 4천원→ 2천원)

전기수도가스 물가지수 추이



주요 품목성질별 기여도 변화(전년동월비)



※ 7월에는 여름철(7~8월) 전기요금 누진구간 완화로 전월비 하락

□ 향후 소비자물가는 기저효과 완화*로 오름폭이 축소될 요인이 확대될 전망이다,

* 물가상승률(전년동월비, %): ('20.7) 0.3 → (8) 0.7 → (9) 1.0
물가지수('15=100): ('20.7) 104.9 → (8) 105.5 → (9) 106.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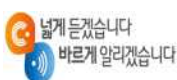
○ 다만, 폭염·태풍 등 기상여건 악화,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 추가상승 등 상방리스크가 상존하고, 코로나19 확산세 영향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

□ 물가 상방압력이 지속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안정적 물가관리에 정책역량 집중

○ 특히,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추석 전 농축수산물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총력 대응

- 명절 성수품 공급물량을 예년보다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농산물 비축·방출, 축산물 출하물량 확대 및 수입 등 추진
- 특히 계란은 살처분 보상금 신속 지급, 수입물량 확대 및 대형마트 등을 통한 소비자 직접판매 확대를 통해 가격 조기인하에 최선을 다할 계획

○ 이를 위해 물가관계차관회의 중심으로 가격·수급동향 및 불안요인을 주기 점검하고, 주요 품목(계란, 소·돼지고기 등)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일 수급점검 체계 운영



기획재정부 대변인

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@korea.kr

